

# 전통과 실험 넘나드는 'X', 광주의 여름 흔든다

‘엑스뮤직페스티벌’, 내달 29~31일 ACC 일원...터치드 등 라인업 눈길 “현대적 음악 축제 비전 보여줄 것”

전통과 실험, 지역과 세계, 그리고 음악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가 울여를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ACC재단)은 다음달 29~31일 3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일대에서 ‘2025 ACC 엑스뮤직페스티벌(XM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의 이름부터 확 바뀌었다. 2010년부터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여름 축제는 올해부터 ‘엑스뮤직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탈바꿈한다. 올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명칭뿐 아니라 축제 정체성과 방향성까지 전면 개편했다는 게 ACC재단의 설명이다.

‘X’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축제를 총괄할 원일 예술감독은 “‘X’는 혁신, 교차, 경계 없음(Borderless)을 뜻한다”며

“지금, 이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기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페스티벌은 동서양, 전통과 현대, 장르와 국경을 넘나드는 협업 무대들로 구성됐다.

개막 공연 ‘X의 제전’은 김도연 퀸텟, 배일동, 전송이, 송지윤, 방수미, 힐금 등 국내외 최전선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며, 판소리와 재즈, 가야금과 전자음악, 즉흥 연주가 교차하는 압도적 무대를 선보인다. 원 감독은 이 무대를 “단지 공연이 아니라, 새로운 사운드 질서의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팀으로는 독특한 음색으로 주목받는 ‘오존×카더가든’,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 ‘단편선 순간들’, 음악 예능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한 ‘터치드’가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무속과 일렉트로닉을 결합한 ‘64ksana’, 에너지 넘치는 전자 월드뮤직 듀오 ‘애니벌 다이버스’도 무대에 오른다.

해외 초청 아티스트도 화려하다. 그래미 레게 앨범 수상자 ‘카바카 피라미드’, 인도네시아 전통과 힙합을 엮은 실험 밴드 ‘센야와’, 유럽 재즈계를 이끄는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스자바츠키’, 광주 출신 작곡가 누빔 김이 이끄는 다국적 그룹도 합류한다.

관람객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무대는 국가 간 협업이 돋보이는 크로스 프로젝트다. 일본 타악기 명인 히다노 슈이치와 민영치가 함께하는 ‘한일타심’, 유럽 재즈와 사물놀이의 만남 ‘전송이 노랫×사물놀이 느닷’, 여성 뮤지션 힐금과 자바츠키가 연출하는 ‘힐금×엘리스자바츠키’ 무대가 대표적이다.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언더-X’ 무대도 새롭게 마련됐다.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의 인디·창작 음악팀 3개 팀을 선발하며, 이들은 정식 라인업과 함께 메인 무대에 설 예정이다.

페스티벌 관람권은 3일권 10만원, 1일권 4만원이며, 오는 24일까지 3일권 한정(600석)에 한해 4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매 및 상세 프로그램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 “X’는 혁신과 경계 없음의 상징... XMF, 완전히 새로워진다”

원일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음악 축제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죠.”

2025년,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엑스뮤직페스티벌(XMF)’로 이름을 바꾸며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원일 예술감독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올해 XMF의 키워드를 단 한 글자 ‘X’로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X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선언”이다.

원 감독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월드뮤직’이라는 명칭이 지닌 오리엔탈리즘적 한계를 체감해 왔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해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한 아티스트가 “월드뮤직이라는 이름이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그 순간을 두고 “진짜 돌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X는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었다. 그는 이 기호에 ‘경계 없음(Borderless)’, ‘장르 없음(Genreless)’, ‘문화 교류(Cross-Culture)’, 그리고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로마자 X는 10이자 완성,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우리가 말하는 ‘X’는 기존 제



원일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계를 멈추고 새롭게 전환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XMF의 무대 구성은 이러한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다. 개막 공연 ‘X의 제전’은 김도연 음악감독의 총지휘 아래, 전통 판소리부터 재즈, 즉흥 연주, 가야금과 전자음악까지 모든 장르가 교차하는 실험적 무대로 꾸며진다. 원 감독은 이를 “장르와 국경, 세대의 경계를 모두 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점은 단지 ‘다양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XMF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아티스트 간 교류와 협업, ACC만의 기획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뮤지션 김도연과 전송이, 송지윤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익스트림 밴드 ‘세나와’, 레게로 그래미를 수상한 ‘카바카 피라미드’, 국내 대중음악상을 휩쓴 ‘단편선과 선원들’ 등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Under X’ 무대는 전국 공모로 선발된 신진 뮤지션들이 정식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한다. 원 감독은 “새로운 음악을 꿈꾸는 이들에게 XMF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젊은 팀이 꼭 한 팀 이상 올라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XMF는 단지 이름만 바뀐 축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만 가능한 실험, 그리고 낮은 세계와 마주하는 기회. 그 모든 것이 광주 ACC에서, ‘X’의 이름 아래 펼쳐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다. 관객들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운드에 몸을 맡기길 바란다”고 XMF를 새롭게 정의했다. 김성수 기자

## ‘ACC 엑스뮤직페스티벌’ 일정표 및 출연진

**1일차 (8월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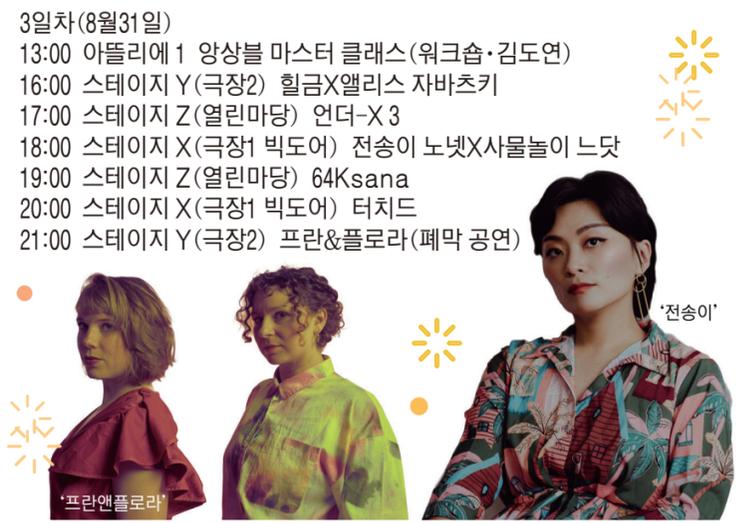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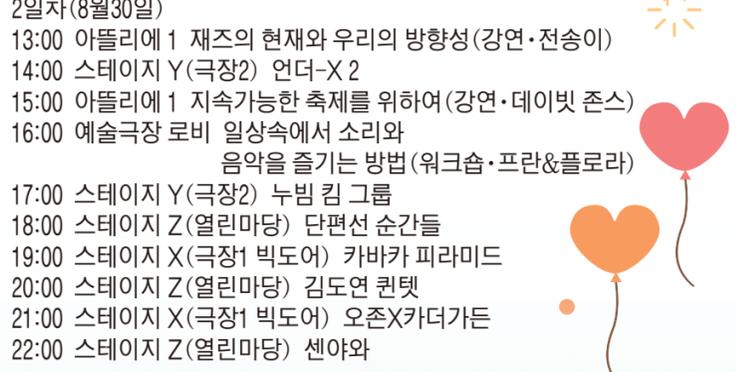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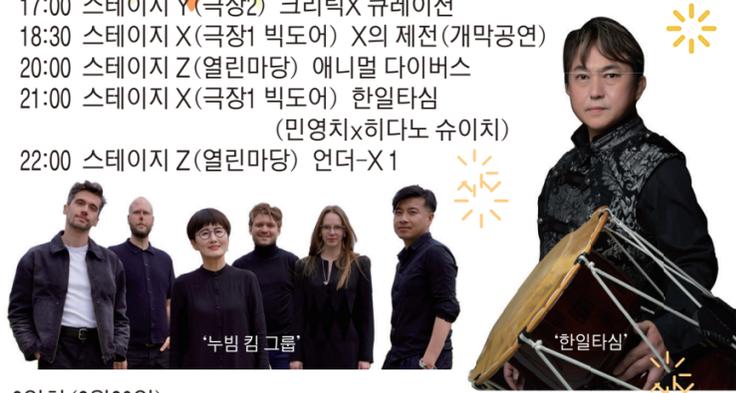
- 17:00 스테이지 Y(극장2) 크리티크X 큐레이션
- 18:3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X의 제전(개막공연)
- 20: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애니벌 다이버스
- 21:0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한일타심 (민영치x히다노 슈이치)
- 22: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언더-X 1

**2일차 (8월30일)**

- 13:00 아틀리에 1 재즈의 현재와 우리의 방향성(강연·전송이)
- 14:00 스테이지 Y(극장2) 언더-X 2
- 15:00 아틀리에 1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하여(강연·데이빗 존스)
- 16:00 예술극장 로비 일상속에서 소리와 음악을 즐기는 방법(워크숍·프란&플로라)
- 17:00 스테이지 Y(극장2) 누빔 김 그룹
- 18: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단편선 순간들
- 19:0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카바카 피라미드
- 20: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김도연 퀸텟
- 21:0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오존X카더가든
- 22: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센야와

**3일차 (8월31일)**

- 13:00 아틀리에 1 앙상블 마스터 클래스(워크숍·김도연)
- 16:00 스테이지 Y(극장2) 힐금X엘리스자바츠키
- 17: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언더-X 3
- 18:0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전송이 노랫X사물놀이 느닷
- 19:00 스테이지 Z(열린마당) 64Ksana
- 20:00 스테이지 X(극장1 빅도어) 터치드
- 21:00 스테이지 Y(극장2) 프란&플로라(폐막 공연)



##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에 장진원·한희원 작가 선정

특별상에 임노식·박성완 작가 “독자적 작품세계 구축” 평가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미술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화 부문인 ‘허백련미술상’ 본상은 장진원 작가(1967년생, 광주), 특별상은 임노식 작가(1989년생, 서울)가 수상했으며 서양화 부문인 ‘오지호미술상’ 본상은 한희원 작가(1955년생, 광주), 특별상은 박성완 작가(1984년생, 광주)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광주광역시장상패 수여, 문화예술창작활동비(본상 1000만



한희원 작 ‘여수로 가는 막차’.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원, 특별상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각 부문 본상 수상자에게는 차기 년도 전시 개최 기회도 주어진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은 지역 출신으로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

을 남긴 허백련 화백과 오지호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1992년 신설돼 2023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올해는 추천위원회를 신설과 더불어 심사위원회도 2회차로 추가 개최해 미술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미술상 위원회 구성에 지역 내외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해 광주시 문화예술상 미술상의 전국적 명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한편 2025 미술상 시상식은 부문별로 마련할 예정으로, 허백련미술상은 9월18일, 오지호미술상은 11월21일 지난해 수상자 기념초대전에 맞춰 개최된다. 박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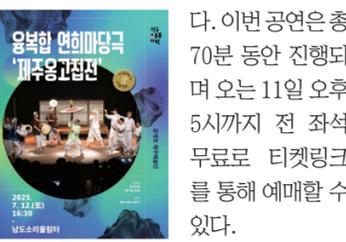
## 전남과 제주 잇는 연희마당극 ‘제주 옹고집전’

12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문화재단은 융복합 연희마당극 ‘제주 옹고집전’을 12일 오후 4시30분 전라남도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개최한다.

‘제주 옹고집전’은 한국 전통 고전 소설 ‘옹고집전’ 속 교훈적 내용에 기반해 연희적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를 함께 진행하는 마당놀이 공연이다. 다양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 콘텐트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시각의 창작 연희마당극인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공연은 지난해 지역 전통공연예술 지원사업의 우수 작품에 선정된 작품이



다. 이번 공연은 총 70분 동안 진행되며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전 좌석 무료로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제주 옹고집전’을 통해 전통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남도민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